

비전과 어둠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창 15:12).

: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그를 주님 손의 어두운 그늘에 두십니다. 이때 성도의 의무는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때는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과 하갈 사건은 어둠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사람의 충고를 듣고 행한 불신앙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후 어둠이 따라오면 기다리십시오. 만일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께서 주신 비전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인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13년간의 침묵의 기간을 지냈으며 그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침묵의 기간은 불쾌한 기간이라기보다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절대로 기쁨과 확신으로 들뜨지 마십시오. 가만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사 50:10,11.

아직도 육체를 신뢰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초월하신 분만 신뢰하십시오. 나의 확신이 책이나 기도 혹은 영적 체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실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 있는 성도는 그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비전과 어둠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창 15:12)

1. 어둠의 시간에 ‘기다림’

비전과 어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챕버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비전을 받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4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백성을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비전 이후에 찾아온 ‘어둠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충고를 듣고 행한 불신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간의 침묵의 기간을 지냈으며 그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침묵의 기간은 불쾌한 기간이라기보다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절대로 기쁨과 확신으로 들뜨지 마십시오. 가만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어둠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때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니, 종종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어둠의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빛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어둠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어느 순간 늘 거기 있었던 더 밝은 부분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이 어둠의 시간 동안에 타인의 충고를 받거나 다른 세상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 때, 성도의 의무는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2. 그리고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 신뢰하기

챕버스는 묻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어야 합니다 …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to know that God is real*’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실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 혹은 우리가 읽은 훌륭한 책, 기도하면서 경험한 영적 체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실제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제가 되실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 있는 성도는 그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나야 했던 날들, 그리고 지루하게 한없이 기다려야 했던 순간들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케이크나 과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당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앞의 즐거움을 잠시 유보해야 끝까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이 그러합니다. 어둠과 비전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성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덜 좋아해서 겪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연단을 위해 세우시는 필수적인 코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실망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잠자리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 ❷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실망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혹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묵상레시피 | 출애굽기 12:29–36 + 창세기 15:12

출애굽 직전,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9절)
마지막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애굽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29–30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3, 36, 41절)
이집트에서 거주한 기간과 출애굽 한 백성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37–38, 40–41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주어, 주체는 누구입니까? (29, 36, 42절)
성경은 이 밤을 누구의 밤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

밤중에(29절)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와예하’는 단지 ‘밤중에’ 라기보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밤 중이 되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밤중에, 그 밤에, 밤에(29,30,31절) (하)라일라. ‘밤’이 반복된다. 밤은 시련, 고난, 울부짖음의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다(사30:19, 롬7:3, 시6:6, 77:2, 88:1, 99:2, 119:55). ‘밤’의 이미지는 애굽인과 이스라엘에게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새번역 42절 그 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짧은 기도

주여,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와 같이 행하시며,

또 주무시지 않고

또 멀리 가시지 않으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 빙그레 웃으시며,

“내 안에서 살아라.”

이용도_주님 안에서(1901-1933, 부흥사) 「사귐의 기도」 229